

온라인 학습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강문희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 in Online Learning

Moon-Hee Kang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o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3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는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 학생 15명이었다. 분석을 위해 모든 면담은 녹음하고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의 4개 범주는 '학습동기의 인지적 작용', '성찰을 통한 나만의 학습전략 마련',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교수자의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설계와 열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온라인 학습, 간호대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질적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 in an online learning.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from July to August 2021,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online learning. For analysi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s the participants said,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4 categories and 11 subcategories were derived. The four categories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on online self-directed learning were 'cognitive action of learning motivation', 'preparing my own learning strategy through reflectio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learning', and 'effective online instructional design and enthusiasm of instru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learning.

Key Words : Online learning, Nursing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Moon-Hee Kang(sinnakk@naver.com)

Received September 7,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27,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에서 출현하여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세계적 대유행 상황의 파급력은 교육 분야에도 전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1].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되었고, 교육계도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을 시행하게 되었다[2]. 기존의 대면 수업 중심의 교육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은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으로 구분하여 줌(Zoom), 웹엑스(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과 PPT 및 기타 수업자료에 교수자의 음성을 입힌 콘텐츠 활용 중심의 녹화 강의식 비실시간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다[3]. 이에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4].

온라인 수업은 웹이 지니는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교수·학습활동으로[5], 이를 통한 학습은 학생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수자 및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교육내용을 자율적으로 학습한다[6]. 즉 온라인 수업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학습자의 학습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교육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7]. 따라서 개인 학습자는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시간과 적합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개인 일상과 학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또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수업자료를 통신기기에 담아 재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일정에 맞추어 강의를 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8].

온라인 학습은 시공간의 편리성은 있지만 개인의 학습에 대한 외부 개입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며[9], 또한 교수자나 동료 학생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다[10]. 따라서 온라인 강의는 개인에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 간접적, 심리적 제약이 약하여 통제력 없이는 온라인 교육의 계속성을 쉽게 잃어버리며, 그 손해는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학습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의지가 중요한 특징이기에 온라인 강의 시 참여의 '문손잡이'가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11]. 온라인 학습

에 대한 경험 연구에서 비대면 강의는 휴식과 학습공간이 공존하는 집에서 학업이 이루어지므로 학습태도나 몸가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인터넷 강의의 밀림이 발생하고[12],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학습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강의 수강을 미루게 되는 자기주도 학습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3]. 따라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 하며,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10]. 또한 온라인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는 교수자의 직접적인 학습지도 역할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학습활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주체자로 바뀌어야 하므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14]. 이에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주제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가는 과정이다[15].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의 구성 요인은 동기화, 자기관리, 자기모니터링으로 학습자가 동기를 설정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학습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며 관련 자원을 관리하며, 자기모니터링을 통해 학습활동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을 책임 있게 점검하는 것이다[16].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 스스로 입수하고 활용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학습의 맥락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동기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7]. 또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과정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학습활동으로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학습활동으로[18] 이해되고 있다. 온라인 강의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려는 유혹이 대면 교육에 비해 크다는[11] 점을 고려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은 온라인 학습 준비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19].

코로나 19로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선행연구로 과제가치[20], 실재감[20, 21], 학습몰입[20], 학업성취도[21] 등의 변수 관련 연구, 온라인 수업 경험[2, 12] 혹은 온·오프 혼합 학습경험 연구[13],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22],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과 지원요구사항 연

구[23]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실시된 온라인 수업 관련 자기주도학습 연구는 수업만족도[24], 학업성취도[21] 등의 변수 연구가 있고, 또한 학습 주도성 증진 방안[25], 자기주도학습 증진을 위한 탐색적 논의[26]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변수간의 관계 혹은 영향을 살펴보거나 자기주도학습 관련 이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자를 다루는 전문직 의료인으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질적연구[27]는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는 보기 드문 실정이다. 이에 일상과 학습의 경계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습자가 '혼자' 어떻게 성공적으로 학습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학습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기주도학습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편의 표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지인인 간호학과 교수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으면서,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가 가능한 학생을 소개받았다. Krueger와 Casey(2014)가 제시한 포커스 그룹의 이상적인 참여자 규모가 5~8명임[29]을 고려하여 각 그룹당 최소 5명이 되도록 추천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소개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연구자 본인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줌(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면담 당일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에 앞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응답한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면담 내용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종료되면 모두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이후 상기 내용이 적힌 동의서 파일을 SNS를 통해 발송하고 회신 받아 서면화된 동의를 획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총 3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학교별로 구성하여 경북 U광역시 U대학교 간호대학생 1그룹과 경남 Y시 D대학교 간호대학생 2그룹이었으며, 각 그룹당 인원은 5명이었다. 먼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각 대상자와 개별 연락을 취해 일정을 상의하여 모두가 참여 가능한 시간으로 인터뷰 일정을 잡았으며, 인터뷰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실시간 화상면담 시 본격적인 연구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자 자신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됨을 설명하였다. 이후 해당 그룹의 참여자 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인터뷰를 편안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질문으로 자유롭게 이야기가 이어가도록 하였다. 인터뷰가 종료될 시점에는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참여자들에게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을 받았다. 각 그룹 당 인터뷰 시간은 대략 80분에서 100분이었으며, 평균 인터뷰 시간은 90분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줌(Zoom)의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음되도록 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도 같이 진행하여 자료가 소실될 것에 대비하였다. 인터뷰 후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필사하였으며, 또한 인터뷰 시 실시간 화상면담을 통해 보여지는 참여자의 특성과 주요 용어, 비언어적 행동 등을 메모한 노트도 함께 사용하여 자료 분석 시 활용하였다. 이후 자료를 분석하면서 의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료의 구성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몇 참여자에게 개별 전화 통화를 실시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보완하고 자료가 포화되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사용되는 질문은 Kreuger와 Casey[29]의 인터뷰 전략에 따라 도입질문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이끌어갔는지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핵심질문으로 좁혀가도록 하였다. 핵심 질문은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수업 시 학습을 위해 스스로 실천했던 자신만의 노력이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수업 시 학습을 자극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였다. 이후 마지막 마무리 질문으로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였으며, 더 이상의 토론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인터뷰 자료는 모두 연구자가 필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Downe-Wamboldt (1992)의 기준[30]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읽었다. 둘째 핵심생각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 있는 단어나 구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셋째 별도로 표시한 의미 있는 단어나 구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 보다 추상성 있는 구로 분류하였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끼리 묶어 추상화시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범주를 더욱 통합하여 최종 범주를 도출해내고 이를 명명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범주와 하위범주는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대학 교수 2인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2.5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간호학 박사 과정에서 질적연구 방법론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질적연구 관련 각종 워크숍,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였으며,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6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연구 평가 기준인[31] 신뢰성(credibility),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확실성(dependability),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해 자료수집 시 참여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녹음된 면담 자료는 연구자가 반복하여 들으면서 필사본과 대조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시에는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다.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확보를 위해 참여자의 구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실제적인 경험에 근거한 의미 있는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가 추출되도록 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대학생 1인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자기주도학습 경험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고 타당한지를 확인 받았다. 확실성(dependability) 확보를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연구 결과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관한 평가를 받고 수정 작업을 거쳐 범주화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였다.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 확보를 위해 면담 시 중립적 태도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연구자의 선입견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지하면서 경청하였고,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총 15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12명, 학년은 모두 3학년이었으며, 평균연

령은 만 20.9세였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총 15명의 인터뷰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의 4개 범주는 ‘학습동기의 인지적 작용’, ‘성찰을 통한 나만의 학습전략 마련’,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교수자의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설계와 열의’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도출된 범주를 중심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경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학습동기의 인지적 작용

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대해 시공간을 초월한 자율적 학습의 장점을 느끼는 동시에 학습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과 의지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학습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내면에는 참여자들마다 개인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학습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3.1.1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책임감

참여자들은 자신은 미래의 간호사가 될 사람이며, 간호사란 아픈 사람들 곁에서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제반 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은 직업적 의무이며 책임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저희가 간호학과니까!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이라 이게 모르면 안되지 않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람을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중략) 그 정도의 지식이 내가 있어야지! 내가 이 이러한 환자를 대할 때 모르면 안되니까(참여자 2).

저희 ‘과’가 사람 목숨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직업인거잖아요. 그래서 좀 빡가 공부 자체를 소홀히 하기에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런 거 땀에 더 열심히 하는게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5).

3.1.2 뚜렷한 목표의식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 하려는 미래지향적 목표의식과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학금 혜택에 대한 확고

한 목표의식은 학습동기를 자극하면서 학습과정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적 학습을 이끌고 있었다.

저는 성적 잘 받는 것도 있는데 저의 일차적인 동기부여는 학점이 잘 나와야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저의 일차적인 동기부여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그거예요(참가자 3).

취업 이제 곧 또 저희는 취업이 당장 4학년 때 하나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13).

3.1.3 자존감 자극과 학업적 성취감

참여자들에게 자존감의 자극은 학습실천을 자극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낮은 성적에 대한 상대적 자괴감은 더 이상 학습을 미룰 수 없게 하였으며, 임상실습 현장에서 무지에 대한 자각도 자존감의 상처가 되면서 학습 욕구를 자극하였다. 또한 이전에 경험한 학업 성취감도 자존감 유지를 자극하면서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였다.

너무나도 낮은 학점을 보아하니 너무너무 낮아서 아!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비대면 강의도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 학교에서 대면을 한다면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참여자 10).

제가 1학년 때 한 3.6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복습이나 공책 정리를 하나까 점수가 갑자기 확 오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복습하거나 문제집 같이 풀면 점수가 더 오르겠다 싶어가지고 하나까 계속 점수가 오르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4).

3.2 성찰을 통한 나만의 학습전략 마련

지속된 온라인 수업은 참여자들에게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강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과 일상의 적절한 분배와 자기 통제의 실패는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은 더 나은 학습을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3.2.1 일일 학습량 설정과 학습기한 설정

온라인 강의가 지연되고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의 학습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일일 학습 분량을 설정하거나 혹은 학습 종료에 대한 기한 설정을 통해 학습을 관리하고 있었다. 즉 참여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 동안 학습해야 될 대략적인 분량을 설정하

거나 혹은 주별 학습 분량에 대한 학습종료 기간 설정과 같은 전략을 통해 학습지연을 막고자 하였다.

저는 처음 비대면할 때는 완전 강의 밀려서 듣고 그랬었는데 점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험기간 때 폭탄을 맞는 경우가 경우를 경험해 해가지고 일단 처음 강의는 딱 올라올 때 거르는 안떨리려고 최대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올라오는 강의들 양 생각해서 하루 계획 짜놓고 정확한 시간은 아니어도 그날에 다 해치우려고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일일 학습량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12).

이제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다 못듣는다 해도 그 주 일요일까지는 무조건 끝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제 같은게 많을 경우는 일단 강의 같은 거 먼저 들어놓고 그리고 과제도 일요일까지 다 끝내자 해서 그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안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5).

3.2.2 최적의 학습을 위한 생활 속 시간관리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일상과 학습의 분배와 균형이 없으면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은 참여자들은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의 시간관리는 대략적인 시간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기상시간 설정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과 오후를 구분한 학습량 분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9시 수업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아침 9시 전에 알람을 5개 정도 맞추어 놓고 일어나서 책을 편 상태로 듣고 (중략) 그렇게 해서 저는 안떨렸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4).

저는 일단 무조건 9시 전에는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무조건 하나는 꼭 들으려고 하는게 오후에 다 밀리면 그 약간 밀린거 다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싫어가지고 오전에 무조건 하나를 미리 들어놓고, 그리고 솔직히 저녁 먹을 시간 때쯤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6시전까지는 다 들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오전에 하나를 듣고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다 듣는 식으로 하고 (중략)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5).

3.2.3 온라인 수업의 장점 활용

참여자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 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 기능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듣고, 중요 내용은 배속 기능을 활용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또한 멈춤 기능

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에서 멈추고 필기와 노트 정리를 통해 학습을 관리하였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밑줄 그으면서 처음에 다 긁고 교수님이 그래도 강의를 빨리 끝내 주시니까! 온라인 강의는 그게 다 끝나면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돌려서 한번 더 보고, (중략) 다시 한번 더 빠르게 훑을 수 있어 놓친 부분이 거의 안남는다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참여자 4)

필기를 하면서 강의 시청하려고 하면 어쨌든 멈춰놓고 또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11).

그날그날 수업은 일단 다 들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2배속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수업이 없는 날에 약간 몰려났다(중략) 오늘 공부한다고 하면 한 단원 정도씩 공부할 때 다시 시작하는 편이에요(참여자 13).

3.3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자신만의 학습전략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주변 환경적 요인도 참여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집중을 위한 환경 조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맞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습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료 학습자와 관계망을 형성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3.3.1 몰입을 위한 학습공간 선택

참여자들은 몰입과 집중을 위한 물리적 학습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는데, 학습 공간 선택 시 참여자들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어떤 참여자는 집과 멀리 떨어진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같은 조용하면서도 다소 긴장감이 있는 장소를 원하였으나 다른 참여자는 편안히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집을 최고의 장소로 원하였다. 비록 선호하는 공간은 달랐지만 모두 자기만의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근데 약간 집에서 집중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략)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TV 소음 이런 거 있으면 집중 안되고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카페를 가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요(참여자 2).

저는 진짜 제가 제일 편한 옷 입고 다 씻고 제 마음대로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딱 적고 이렇게 공부하는 편이 아니고 여러 번 많이 읽는 편이라 가지고 항상 저는

집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3).

3.3.2 동료학습자와 관계망 형성과 협력

교수자 혹은 동료 학습자와 대면수업과 같은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 및 관련 강의자료나 학습교재에 의지한 채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학습자와 카톡방을 개설하여 학습내용의 어려운 점과 의문점을 해결하고 있었다.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서 친구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다 다 같이 몇 명이 올리거든요. 혹시 '그거 아는 사람?' 하면 저도 잠시만 기다려봐 이라고 찾으면서 대답해주고, 제가 모르는거 있으면 저도 질문하면 친구들도 찾아서 대답해주시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가 대답해 주는거 보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공부 한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3.4 교수자의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설계와 열의

참여자들은 교수자의 수업설계를 통해서도 학습에 대한 주도성이 증진되었다. 즉 다양한 이벤트가 포함된 강의 콘텐츠, 열의 있는 강의 태도, 그리고 집중하게 만드는 강의자료 등을 잘 활용한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설계는 참여자들에게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였다. 또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교수자의 노력과 평가를 적절히 활용한 수업설계도 참여자들의 학습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3.4.1 학습을 자극하는 강의 콘텐츠 및 포인트 있는 강의

학습을 자극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수업은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발하였다. 즉 열의 있는 교수자는 퀴즈나 빈칸 활용 혹은 강의에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동영상 등의 이벤트를 삽입한 효과적인 강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참여자들을 수업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톤에 강약을 주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보기 좋고 잘 구성된 강의 자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교수자의 온라인 강의는 가장 먼저 듣도록 유도하면서 주도적 학습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퀴즈 풀면서 앞에 공부했던 내용 확인하니

까 이거 풀면은 내가 아는 거고 틀리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저는 퀴즈 있는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참여자 3).

어떤 교수님은 PPT를 따로 주시는데 안에 빈칸을 만드셔서 가지고 저희가 그 강의를 안들으면 그 빈칸을 못채우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강의를 듣고 또 놓친 부분을 한번 더 듣게 되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렇게 또 두 번 복습하게 해주시고 해요(참여자 4).

PPT를 보면 오늘 어떤 순서대로 이런 내용을 배울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중략) 그림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관련 동영상을 찾아서 올려주시거나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1).

'오늘 하루 이거는 알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아는데 약간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수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재미있는 과목을 하자 싶어서 그 과목을 먼저 공부했던 거 같습니다. (중략) 교수님이 강의하시는게 조금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조금 열과 성의를 다하신다 라는게 느껴져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참여자 11).

그런 (열정이 있는) 교수님들은 중간 중간에 목소리도 커지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봐야겠구나! 이런 것도 좀 있는거 같고 (중략)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조해주시고 하는게 차이가 많이 큰거 같아요. (중략) 교수님의 톤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어떤 교수님은 그 PPT도 이렇게 너무 길게 분량을 안만드시고 적당하게 분량을 짧게 짧게 해서 나눠서 저희가 너무 지루하게 안느끼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업보다 재미있게 느껴져서 좀 먼저 듣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5).

3.4.2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온라인 수업은 상호작용적 측면 특히,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다소 접근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시간 외 별도의 화상면담 시간을 마련하거나 실시간 수업 종료 후 질의시간을 주어 의문사항을 질문하도록 하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노력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학습참여와 주도적 학습을 자극하였다. 또한 교수자의 열정 있는 피드백도 참여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발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질문타임 같이 2주에 한번씩 줌으로 수업하고 그렇게 해요(참여자 12).

줌으로 2주에 한번씩 교수님들이 줌을 켜시면은 질문 할 거 미리 해놨다가 질문하거나 질문하라고 하시고 부끄러우면 채팅으로라도 쳐서 보내라 하시고, 아니면은 온라인 강의실에 궁금한거 있으면 올리는 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3).

저는 교수님들이 과제 확인을 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번 오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3).

3.4.3 평가의 적절한 활용

참여자들에게 교수자의 평가는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온라인 강의 시 학습내용이나 과제의 평가 반영 유무에 따라 참여자들의 추후 학습 여부가 달랐다.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반영 정도와 유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 학습을 위한 자극제였다.

확실히 점수가 시험 성적에 제 성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그런(퀴즈)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풀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성적반영) 없이 퀴즈만 딱 내주시면은 '아! 이걸 이겨구나.' 하고 간단히 넘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4).

퀴즈가 약간 시험 문제에 들어가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셔서 대개 좀 퀴즈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지고 틀리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기간 아니어도 (참여자 13).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고 있고, 학습과정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 경험의 첫 번째 범주는 '학습동기의 인지적 작용'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이 학습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면에는 다양한 동기적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동기를 인식하고 행동적 실천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구성요인으로 동기적 측면이 포함되며[15, 32-34], 동기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35] 맥락

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들의 내적 동기요인은 다양하였는데, 특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책임감'은 다른 일반 대학생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적인 동기적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는 직업기초능력 영향요인 연구에서 간호 전문직관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간호 전문직관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36]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서 직업적 책임감 강조는 자기주도학습 전략 마련 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향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강화를 위해 직업적 소명의식이나 사명감 등의 직업적 책임의식을 강조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면 자기주도학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가 모두 임상실무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직접 관찰하고 목격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었기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책임감을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직업적 책임감 외에 뚜렷한 목표의식도 내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습의 주도성을 갖게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취업을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의식이나 장학금 혜택을 위한 경제적 문제 해결의 현실적 목표를 인식하고 학습과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 이는 학습동기는 학습과정에 필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습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촉진시키며, 목표 지향적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37]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결국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는 학습하지 않는다는[35 재인용] 점을 고려할 때 자기주도학습 증진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 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 경험의 두 번째 범주는 '성찰을 통한 나만의 학습전략 마련'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제공하였지만 치츨 자율성과 학업을 위한 자기 통제력 사이의 균형을 잃게 되면서 학습관리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학업적 책임감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로 이어지면서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학습전략을 모색하여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주도 학습은 반성과 성찰을 수반하면서 학습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며, 학습활동 전반에 관여한다는[26]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학습에 대한 성찰적 자세

는 자기주도학습의 중요한 기반이 됨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성찰적 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시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전략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학습과정에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학습과정을 진행한다는[32, 38] 것보다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전략으로 주차별 업로드 되는 강의를 밀림 없이 소화하기 위해 대면수업 시 자기주도학습 전략으로 사용했던 앞자리 앉기와[39] 같은 전략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며, 다른 전략이 필요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참여자들은 일일 학습분량 설정 혹은 학습기한 설정과 같은 학습전략을 통해 스스로에게 압박과 긴장을 주는 자기통제 방법을 사용해 주도적 학습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학습기한이나 분량설정 보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기상시간이나 강의시간을 정하여 생활 속 시간 관리를 통해 학습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자기주도학습 전략으로 시간관리 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와[12, 27, 39, 40] 일치하는 것이다. 시간관리가 자기주도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관리전략[39, 40]임을 고려할 때, 일상에서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시간관리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생활 속 시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고 독려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전략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 활용이었다. 즉 대면수업 시는 강의의 일회성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교수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강의 내용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온라인 수업의 반복기능을 활용한 학습관리는 강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배속기능은 학습시간을 단축시켜주거나 혹은 중요 내용을 빠른 시간 내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여 학습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멈춤 기능 또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필기가 필요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의 자기주도학습 양상 연구에서 '동영상 재생 관련 다양한 기능 활용'이 도출된 것과[12]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술의 시스템 속에서 학습자들의 주도적 학습을 이끌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술적 장점들을 잘 파악하여 이를 강화하고 보완해 간다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적 학습 증진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 경험의 세 번째 범주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도출되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학습을 위해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집중을 위해 몰입이 잘 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였는데 참여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떤 참여자는 다소 긴장감이 있으면서 조용한 공간으로 카페나 독서실을 선택하였으며, 반면 다른 참여자는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가 허용되는 집을 선택하였다. 이는 자기주도학습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대상자들은 집중을 위해 최적의 공간을 마련하고 학습 환경을 관리한다는 연구결과와[27, 39]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외적환경을 관리함으로써 학습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환경은 학습자의 학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41] 라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향후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시 대학차원에서 학습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다양한 물리적 환경 조성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이해의 부족이나 의문점에 대해 동료 학습자와 전화나 카톡방 개설 등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협력 과정을 통해 배움을 공유하면서 능동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는 의과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양상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학습을 관리한다는 결과와[27] 공학전공 우수학습자 대상의 자기주도 학습전략 연구에서 교수 또는 조교나 선배, 친구 등의 사회적 도움 활용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39]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망의 협조와 도움이 전략이 되어 주도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 간의 관계망 형성을 지지하고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자들의 자기주도학습 경험의 네 번째 범주는 '교수자의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설계와 열의'로 도출되었다. 이는 지식은 사회적 구조물이고 인간은 상호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은 혼자 학습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의 협력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42]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시키며, 학습과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학습과정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보고[34]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학습을 유도하는 퀴즈

나 빈칸 삽입, 학습 이해를 강화하는 동영상이나 그림 삽입 등의 여러 이벤트가 포함된 교수자의 성의 있는 강의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자극 받고 있었다. 또한 교수자의 목소리는 학습 자극의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강의 시 목소리에 강약을 담아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교수자의 동영상상을 우선적으로 수강하였고, 또한 온라인 강의 시 중요 내용에 강약을 표현한 포인트 있는 강의도 우선적으로 수강하였다. 이는 온라인 수업 설계에서 교수자가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22]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수동적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 전략으로 다양한 이벤트(퀴즈, 강의 이외의 영상)나 짧은 영상편집 활용을 제안하는 연구들[43] 지지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지원 전략을 위해 교수자의 역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44]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학습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콘텐츠 구성과 다양한 교수 학습전략을 포함한 질 높은 수업설계 및 운영전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수-학습자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학습이 자극 되었는데, 과제나 퀴즈에 대해 교수자의 적극적이고 열의 있는 피드백은 능동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면서 주도적 학습을 자극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해 주고자 수업 외 별도로 실시간 화상면담 일정을 마련하여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교수자의 열정 있는 노력 또한 주도적 학습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수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작용은 중요한 설계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45]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온라인 수업설계 시 교수-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고민과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참여자들은 교수자의 평가 활용을 통해서도 학습 참여 정도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온라인 강의 시 교수자가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평가 반영 유무나 정도에 따라 집중도와 추후 반복 학습 정도가 달라지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평가는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46]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료되며, 온라인 수업에서 평가의 적절한 활용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혼자'만의 학습이 아니라 교수자의 조력이나 학습설계도

고려해야 될 요인이므로 향후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질 높은 수업 콘텐츠 구성, 학습자와 상호작용 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평가의 효율적 분배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설계가 필요하며, 여기에 교수자의 노력과 열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활동이 어떠한지 생생한 경험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의 동기적 요인, 학습전략, 그리고 관련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비대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어떻게 일어난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모습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학습자 동기 유발은 중요한 문제인데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문직 책임감이 학습동기로 확인된 점은 향후 자기주도학습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기주도학습은 개인 학습자만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될 것으로 학습 환경이나 교수-학습자 공동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온라인 학습에서 본 연구 결과가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질적연구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최종 4개의 범주와 11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4개의 범주는 '학습동기의 인지적 작용', '성찰을 통한 나만의 학습전략 마련',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교수자의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설계와 열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학습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진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학업적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학습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이면에는 내재된 동기들이 작용하여 학습 실천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마다 각기 다른 동기적 요인들이 있었다. 미래를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의식이나 학업적 성취경험 등이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직업적 책임감이 학습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습을 자극하는 강의 구성이나 학습자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 등의 교수자의 열의 있는 온라인 수업설계를 통해서도 참여자들의 학습에 대한 실천적 행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시 좀 더 학습자를 고려하고 학습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 학습전략을 포함한 효과적인 수업설계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향후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학년을 포함한 추후연구의 진행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설계를 통해서도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실천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설계 마련을 위해 학습자 입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수업 전략은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인식연구도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J. W. Kim, Y. S. Park, K. Y. Kim & K. S. Yang. (2021). An analysis of College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online classes under the COVID-19 situation. *Educational Reserch*, 80(1), 33-58.
DOI : 10.17253/swueri.2021.80..002
- [2] W. S. Park, J. H. Park & Y. M. Lim. (20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online class experience conducted with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2), 707-728.
DOI : 10.12811/kshsm.2017.11.2.129
- [3] S. Y. Song & H. K. Kim. (2020).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and Persistent Intention to Take Non-Face-to-Face Co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ian Journal of Education* 21(4), 1099-1126.
DOI : 10.15753/aje.2020.12.21.4.1099
- [4] S. M. Kim. (2020). Analysis of Press Articles in Korean Media on Online Education related to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6), 1091-1100.
DOI : 10.9728/dcs.2020.21.6.1091
- [5] M. S. Kang & M. L. Kim. (2014). The Scale Development for instructor's role in online teach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0(4), 521-545.
DOI : 10.15833/KAFEIAM.20.4.521
- [6] Y. H. Cho, S. Y. Huh, H. S. Choi, J. Y. Kim & H. K. Lee. (2015). Research Trend of Onlin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n Ecological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1(4), 725-755.
DOI : 10.17232/KSET.31.4.725
- [7] M. W. Yu. (2021). *Interaction between learning method and course division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presence in the synchronous universities online class*.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8] E. J. Lee. (2010).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onvenience in Online Cour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6(3), 341-362.
- [9] C. J. Hun. (2020). A completely changed experience to face-to-face learning: Focusing on counseling majo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 1105-1135.
DOI : 10.22251/jlcci.2020.20.16.1105
- [10] S. H. Bae & S. J. Hwang. (2021). Commitment and Predictors in Onlin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atent Profile Analysi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1), 279-308.
DOI : 10.30916/KERA.59.1.279
- [11] J. Y. Park. (2020). A Review of University Online Education Facilitated by COVID-19. *Journal of the KSME*, 60(7), 32-36.
- [12] Y. H. Kim. (2020). Virtual Academic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Due to COVID-19.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278- 290.
DOI : 10.5762/KAIS.2020.21.12.278
- [13] S. Y. Kim. (2021). Essay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Online/On-off Mixed Learning Experi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9), 67-83.
DOI : 10.22251/jlcci.2021.21.9.67
- [14] E. S. Cho. (2020). Untact Classes in Post Covid-19: The Rol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al Technolog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3), 693-713.
DOI : 10.17232/KSET.36.3.693
- [15] M. S. Knowle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Y. : Association Press.
- [16] D. R. Garrison. (1997). Self-directed learning: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Adult Education Quarterly*, 48(1), 18-33.
DOI : 10.1177/074171369704800103
- [17] Y. J. Bae. (2010). A qualitative study on self-directed Learning in cyber spac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2), 205-223.
DOI : 10.15708/kscs.28.2.201006.008
- [18] M. Y. Hai. (2020). The Self Directed Learning and Neo-Liberalism.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34(2), 25-41.
DOI : 10.17283/jkedi.2020.34.2.25
- [19] P. J. Smith, K. L. Murphy & S. E. Mahoney. (2003). Towards identifying factors underlying readiness for online learning: On exploratory study. *Distance education*, 24(1), 57-67.

- DOI : 10.1080/01587910303043
- [20] S. H. Im. & S. H. Hong. (2021). Effects of Task Value and Presence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6), 387-397.
DOI : 10.22251/jlcci.2021.21.6.387
- [21] M. J. Oh. (2020). The Effect of Self-Regulation Learning, Teach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K-MOOC Setting.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6(2), 191-212.
DOI : 10.26857/JLLS.2020.5.16.2.191
- [22] M. O. Suh. (2021). The Study of 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at Related the Case of Online Class in the Corena 19 Pandemic.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 561-582.
DOI : 10.22251/jlcci.2021.21.2.561
- [23] Y. M. Jeong. (2020). The Difficulty and Needs for Support for Online Class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685-698.
DOI : 10.22143/HSS21.11.5.50
- [24] J. M. Lim, S. H. Kim, M. J. Baek & K. H. Kim. (2021).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s on Uncontacted Online Class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4), 393-401.
DOI : 10.14400/JDC.2021.19.4.393
- [25] S. I. Kim.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arning Initiative in the Online Non-face-to-face Classes Caused by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2(1), 913- 927.
DOI : 10.22143/HSS21.12.1.64
- [26] M. N. Jun. (2020). Exploratory Discussion to Promote Youth's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1(4), 25-52.
- [27] Y. J. Kang, J. H. Rho & D. H. Kim. (2021). A Qualitative Study on Self-directed Learning in Online Classes of Medic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319-343.
DOI : 10.22251/jlcci.2021.21.4.319
- [28] S. Merriam. (2001). Something old, something new: The changing mosaic for adult learning theory.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4(1), 1-31.
- [29] R. A. Krueger & M. A. Casey. (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Edition*. Seoul : Myung In Publishers.
- [30] B. Downe-Wamboldt.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3), 313-321.
DOI: 10.1080/07399339209516006
- [31]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32] P. R. Pintrich & E. V. De Groot.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DOI : 10.1037/0022-0663.82.1.33
- [33] H. S. Joo. (2003). Conceptualiz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1(1), 203-221.
- [34] G. C. Hong. (2004). The Analysis of Learning 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Learning Model for Constructive Self-Direct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75-98.
- [35] Y. J. Jo. (2011).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s connec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adult learners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36] Y. H. Seo. (2017).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ocational Basic Competencies,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1), 274-289.
DOI : 10.5392/JKCA.2017.17.11.274
- [37] Y. R. Kim.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 & School-Related Coping Scale (B) and Relations Between (A)&(B).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7, 3-37.
- [38] M. H. Shin. (2009). A Study on the Level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or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2(4), 84-92.
DOI : 10.18108/jeer.2009.12.4.84
- [39] S. H. Jin. (2013).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ies of High Academic Achievers Majoring in Engineer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5), 24-35.
DOI : 10.18108/jeer.2013.16.5.24
- [40] H. J. Lee & E. M. Sung. (2011). An Analysis of Learning Strategies of High Academic Achievers for Learner-centered Instructional Design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7(1), 1-35.
DOI : 10.17232/KSET.27.1.1
- [41] D. S. Lee. (2013). *Development and Validity Test of Self-Directed Learning Evaluation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Busan.
- [42] Y. S. Youn. (2012). The Model of Korean Enneagram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9(2), 9-60.
- [43] D. S. Kim & M. H. Lee. (2019). Perception on Online Learning of Faculty Member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3), 845-867.
DOI : 10.22251/jlcci.2019.19.13.845
- [44] Y. E. Chin & J. W. Lee. (2007). Research the Trends

and Tasks of Self-Directed Learning Studi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4(1), 221-249.

DOI : 10.24211/tjkte.2007.24.1.221

- [45] H. D. Song & K. S. Kim. (2010).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tegrative Assessment Framework for Analyzing Interaction in Asynchronous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5(3), 19 -37.

- [46] J. Y. Lee, E. M. Sung, J. E. Lee, K. Y. Lim & S. Y. Han. (2020). Challenges and tasks facing online clas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3), 671-692.

DOI : 10.17232/KSET.36.3.671

강 문 희(Moon-Hee Kang)

[경력]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7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자기주도학습, 학습지연

· E-Mail : sinnakk@naver.com